

꿈과 환상이 가득찬 童話의 세계

‘볼로냐 아동도서전’을 통해 본 세계의 어린이책들

梁文吉

소설가 · 교보문고 출판홍보차장

유서깊은 古都의 축제

이탈리아 중부에 위치한 작은 도시 볼로냐(Bologna). 인구 50만의 이 아담하고 대단히 유서깊은 도시에서는 꽃들이 만발하는 4월이면 해마다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아동도서전시회’(Bologna Children’s Book Fair)가 열린다.

올해로 스물여섯번째를 맞이한 이 도서전시회가 개최된 것은 지난 4월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볼로냐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상공회의소 상설전시관이 도서축제의 무대이다.

옛 로마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적인 도시 볼로냐는 중세 이래로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특히 17세기에는 회화분야에서 볼로냐파가 크게 활약, 세계미술의 센터로 각광을 받은 적도 있었다.

중세시대의 아카데미가 있는 거리, 옛 궁전과 성당, 斜塔과 시청사 등 고색창연한 건물들이 시내 중심가에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의 숨결이 진하게 배어오는 감동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우리식 관점으로는 현재의 인구나 도시의 크기로 봐서 세계적인 규모의 도서전시회가 열린다는 게 얼른 납득이 가지 않았는데, 볼로냐의 역사적 토양과 후광이 그 정도라면 과연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볼로냐 역광장에서 도서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상공회의소까지는 버스로 약20분 거리. 전시장 입구에는 화려한 만국기가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내방객을 환영하는 대형 조각물(‘WELCOME’이라는 문자를 간결하게 처리했음)이 대뜸 시선을 사로잡는다.

약 5천평 크기의 단층건물로 지어져 있는 전시장에는 국가별로 구분된 6개의 대형홀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59개국에서 1,180개의 출판사가 참가, 640개의 ‘부스’(Booth)를 설치하여 저마다 개성적인 디스플레이로 아동도서들을 전시하고 있었다.

59개국 1천여 출판사 참가

특히 전시장 전체에 철골의 노출된 조형미를 그대로 살려서 색상의 조화를 피한 점은 현대 건축예술의 표본을 보는 것 같아 매우 신선한 충격을 던져 주고 있었다.

세계 어린이책의 경향은

평면적인 ‘이야기 그림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재와 제작기법을 동원한

입체형태의 그림책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우리가 흔히

모델로 삼는 일본의 어린이책조차

유럽세의 뛰어난 일러스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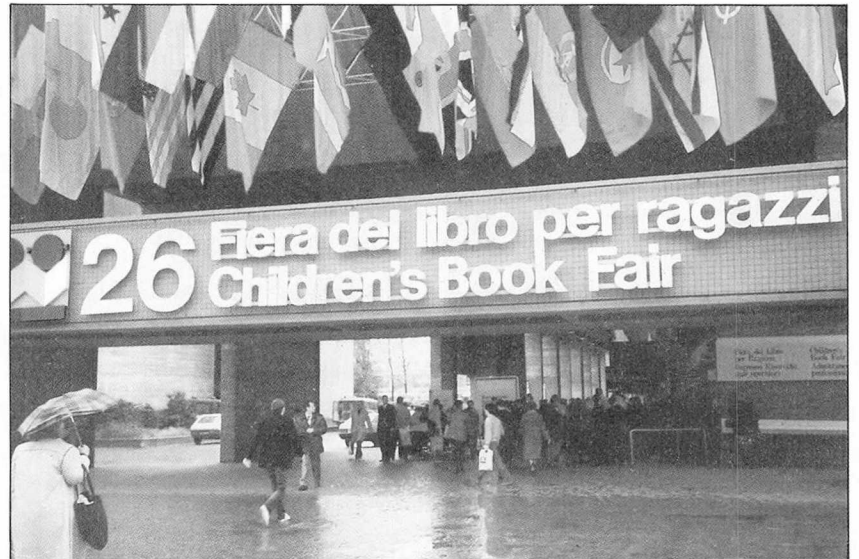
인쇄기술에 밀려 한 수 아래라는

사실이 역력했다.

미국 · 오스트레일리아 · 뉴질랜드 · 인도 · 파키스탄 · 홍콩 · 싱가포르 등이 25홀과 26홀에 나누어져 있고, 영국 · 이디오피아 · 앙골라 · 터키 · 잠비아 등의 나라가 27홀, 프랑스 · 이탈리아 · 스페인 · 멕시코 · 중국 · 소련 · 유고슬라비아 · 헝가리 · 그리스 · 캐나다의 출판사들이 29홀을 쓰고 있었다. 30홀에는 서독 · 동독 · 덴마크 · 노르웨이 · 스웨덴 · 스위스 · 브라질 · 쿠바 등의 출판사들이 위치해 있었으며, 특별전시관인 21홀에는 ‘89 아동도서 삽화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금년에는 특히 이란의 아동도서삽화전이 이벤트로 마련되어 환상적인 ‘아라비안 나이트’를 연출하고 있었다.

전시되고 있는 일러스트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심사위원들이 직접 참가하여 최우수작을 뽑는 행사를 펼치고 있는 것도 대단히 돋보이는 점이었다. 특별 전시관의 또 한쪽에서는 ‘미디어, 어린이, 책’이라는 주제로 텔레비전과 책과의 사이에서 고심하는 어린이들의 문제점을 시각화한 멀티비전이 상영되고 있어 이채로웠다. 이 대규모 비디오 쇼를 위해 영국의 BBC 방송국, 일본의 NHK, 이탈리아 TV, 미국의 NBC, 독일 · 벨기에 · 스웨덴의 TV사들이 각각 참가하여 ‘그림 속에 숨어 있는 말들’(The word behind the pictures)이라는 주제로 제작한 비디오 프로그램이 여러 대의 화면을 통해 동시에 비쳐지고 있어서 대단한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리터러리 에이전트 센터’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몰려온 에이전트들의 商談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WHO’S WHO’



‘볼로냐 아동도서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상공회의소 상설전시관 입구.

‘WHO’S WHERE’라는 안내 팸플릿을 통해 어느 나라의 어느 출판사가 어디에 있으며, 출판계 인사들이 누구누구 참가해 있는지를 알기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 치밀성이 한층 돋보였다.

전시장 전체가 풍기는 예술적인 분위기가 대단히 좋았지만, 개개의 전시대마다 아동도서 진열에 걸맞게 기발한 장식물들, 예컨대 아동도서 주인공의 대형 입체물 또는 갖가지 자기자기한 인형들을 함께 디스플레이해 놓음으로써 전시장이 곧 꿈과 환상으로 가득찬 동화의 세계에 온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었다.

입체형태의 그림책이 주류 이뤄

자기 나라에서 적어도 내로라하는 아동도서들을 자신있게 펴내고 있는 출판사들이 자랑스럽게 내놓은 다양한 어린이책들을 직접 접하면서, 세계 아동도서 출판의 대체적인 흐름이랄까, 두드러져 보이는 특색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전시회 참관의 의의였다고 할까.

우리의 시중 서점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평면적인 ‘이야기 그림책’은 이제 아동도서의 보편적이면서도 거의 고전적인 유형에 속해버렸다는 것이 이 전시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었다.

특히 미취학, 또는 저학년 대상의 어린이책들은 평면적인 ‘이야기 그림책’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소재와 각양각색의 제작방법을 동원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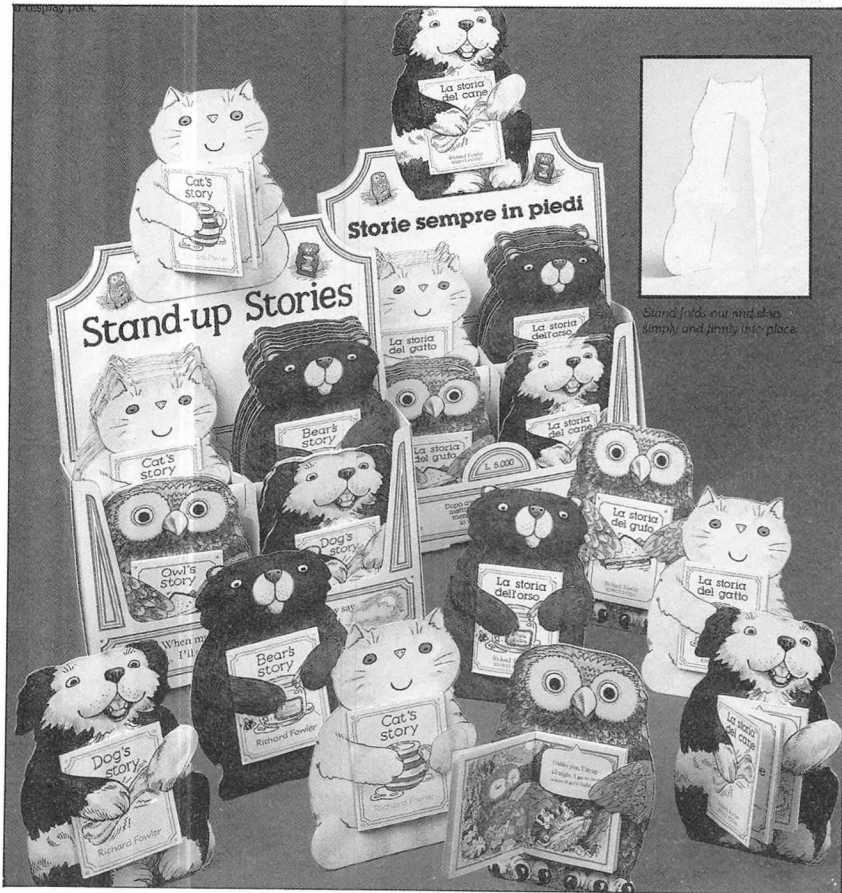


자기 출판사의 주인공을 대형 POP로 만들어 장식해놓았다.

입체형태의 그림책으로 대폭 전환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으로 보였다.

흔히 ‘Pop-up Book’ ‘Toy Book’ ‘Activity Book’으로 일컬어지는 입체그림책, 또는 장난감 스타일의 책, 움직이는 책들이 세련된 제작기법과 선명한 인쇄, 좋은 지질 등으로 다양하게 출간되고 있는 것이 여러나라의 출판물들에서 눈에 띄었다.

소위 ‘Toy Book’이나 ‘Pop-up Book’들은 우리나라 아동도서 출판계에서도 일찍부터 개발한 바 있어 몇군데 출판사가 이런 책들을 전문적으로 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작기법의 한계성과 높은 제작원가 부담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것이 결점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다양하게 개발해낸 어린이책들. 입체 그림책, 장난감 스타일의 바퀴달린 책, 움직이는 책들이 세련된 제작 기법과 선명한 인쇄, 좋은 지질 등으로 어린이들을 환상의 세계로 이끌고 있다.

지적되고 있다.

입체형태의 그림책들은 장난감 또는 완구제작기법을 응용해야 하는데, 기술과 아이디어의 개발이 성패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입체그림책의 개발, 또는 어린이들이 직접 조립하면서 배우게 되는 '액션 북'의 다양한 출간은 아동들의 능력개발 및 조기교육 정착과 관련하여 대단히 주목해야 할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출판대국이라고 할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이른바 선진국에 속하는 나라의 출판사들이 이러한 입체형태의 아동도서들을 시리즈로 펴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어린이들의 능력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러한 책들이 선진된 나라에서 더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장난감화된 책, 책과 완구의 결합, 조립식을 이용한 퍼즐게임 책 등의 다채로

운 '보기'들을 접하면서 출판사가 어린이들의 마음읽기에 얼마나 진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깊숙히 가슴에 닿아 오기도 했다.

책이 입체화되어 가는 경향과 함께, 향기나는 책, 전자공학을 이용한 소리나는 책들이 여러가지로 눈에 띄는 것도 또한 주목할 만한 현상이었다.

전자공학에 기발한 아이디어 접목

주로 학습과 관련된 저학년용 어린이 책 가운데 손으로 문지르면 꽃향기를 내뿜거나 전자봉 같은 것으로 가리키면 소리가 나는 아동도서들이 그 신기함 때문에 참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접목시킨 이러한 책들은 아동도서에 관한 그 개발의 소재가 과연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을 던져 주고 있었다.

우리가 흔히 책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드웨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어린이용 출판물에 대해서만은 이러한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뜨리는 '소프트웨어'식 발상법이 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목이었다.

'향기나는 책' '소리나는 책'과 함께 또 한가지 눈길을 끄는 점은 '빅북'(Big Book)의 유행이었다. 거의 국배매판에 가까운 이 대형 '보드북'(Board Book)은 20페이지 안팎의 저학년용 그림책인데, 시원시원한 그림과 함께 간단한 스토리로 엮여져 있거나 단어 배우기, 숫자 배우기, 동물그림 찾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이 '빅북'은 한권의 책으로 2,3명의 어린이가 함께 볼 수가 있어서 아동들로하여금 공동체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형 아동도서의 유행은 그 나라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등 교육기관의 학습방법과 유기적인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른바 학습공간을 비롯해서 여러가지 환경이 과밀화하고 있는 우리의 실정에 비추어 과연 어떠한지 다소 의구심이 드는 감이 없지 않았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의 출판사들이 이 '빅북'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았다.

뒤편이해도 아동도서의 핵심은 그림에 있다. 그림의 기법이 애니메이션이든, 그래픽이든, 만화 형태이든, 사실화이든 간에 일러스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부족할

정도이다.

전시회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우수한 아동도서들이 그 탁월한 일러스트로 해서 한결 뛰어나 보이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팅 빈 '한국관'... 국가적인 '체면' 손상 커

그러나 그 일러스트를 인쇄로 옮겨 놓았을 때의 고품위성, 우아하고 부드러운 색상이 주는 다정다감함, 한없이 빨아들이는 듯한 환상적인 아름다움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쇄기술상의 여러 조건들이 잘 조화되어 原畫인 일러스트의 질감을 효과적으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어쩌 하여 그들은 그것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과 부러움이 끝까지 머리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다.

적어도 아동물에 관한 출판왕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일본의 대형 출판사들조차 유럽세의 뛰어난 일러스트와 인쇄기술에 밀려 한 수 아래라는 사실이 역력히 드러나 보였다. 그 벽은 대단히 높고 두터워 보이기만 했다.

한가지 의외의 사실은 문학·철학서 출판으로 명성이 높은 프랑스의 갈리마르출판사가 상당히 다양한 아동도서를 출간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펴낸 교육용 시리즈가 청소년분야의 우수아동도서상을 수상하고 있다는 점이 있었다.

그 수많은 출판사들 가운데 프랑스의 나탄(Nathan), 스위스의 보엠 프레스(Bohem Press), 벨기에의 카스트망(Castman), 이탈리아의 파브리(Fabbri) 출판사의 책들이 특히 돋보였음을 부연해 둔다.

못내 유감스러웠던 점은 전시회 기간이 끝나갈 때까지 우리 出協을 통해 삼성이데아, 삼성당, 시사영어사, 웅진미디어, 서울국제출판사 등이 참가 예정으로 있었던 한국관의 '부스'가 텅 비어 있었다는 점이다. 영국세관 당국의 파업으로 출판도서의 발이 묶여서 생김 피치 못할 사정이었다고는 하지만, 국제적인 체면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손상되는 낯뜨거운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볼로냐를 떠나면서 뒷머리를 목격하게 짓누르는 상쾌하지 못한 느낌의 진원지는 아무래도 텅 빈 한국관이었음을 밝혀둔다.